

Publication: BizIT

Date: 06/04/2011

Subject: Cloud market trend and coming up with an effective counterplan

<http://www.biziton.com/index.jsp>

"클라우드 현황과 대응방안"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2011 프레스 서밋 개최 2011/04/06



세계 네트워크, 통신 및 보안 분야의 시장동향을 소개하는 '넷이벤츠 APAC 2011 Press Summit'이 4월5일부터 7일까지 말레이시아 랑카위 안다만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넷이벤츠 행사는 시스코, HP, 브로케이드, 알카텔 루슨트, 타타커뮤니케이션, IDC, MEF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벤더 업체와 시장 조사기관이 참여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넷이벤츠 APEC프레스 서밋은 매년 네트워크 통신 및 보안 분야의 선도 업체와 아태지역 주요 언론 등에서 참여하고 있

다.

매년 IT업계의 이슈를 모아 이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IT포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7일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LTE, 가상화, 보안 등 주요 IT 업계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다.

6일 열린 첫날 행사는 존 맥휴즈 브로케이드 부사장 겸 CMO의 'Blue Sky and Clouds' 주제의 기조 연설로 시작했다.

맥휴즈 부사장은 클라우드를 위한 가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많은 국가의 기업들에서 가상화가 도래했으며 즉각적인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가치란 지난 일 년 내 가상화를 사용한 고객들을 약 이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용하고 있는 서버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IT세계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증가하는 반면 서버수를 줄이면서 효율성을 내는 것이 좋은 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매트 워커 오뎀 수석컨설턴트가 '모바일 클라우드 액세스-LTE'를, 팀 딜런 IDC AVP담당자가 '클라우드 보안에 관한 이슈와 방안'에 대한 강연과 패널들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7일에는 타타커뮤니케이션즈 부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클라우드에 대비하는 IT 업계와 사용자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강연과 패널과 기자단의 질의응답이 이뤄질 계획이다. **CIO**